

프랑스 Essais文學의 類型 研究

鄭 鳳 九*

目 次

- | | |
|------------------------|--------------------------------|
| I. 緒 | VI. Valéry의 散文 |
| II. 一般的인 類型概念 | VII. Barthes의 Essais critiques |
| III. Montaigne의 Essais | VIII. Thibaudet의 Essayisme |
| IV. Alain의 Propos | IX. 其他類型 |
| V. Camus의 Essais | X. 結 論 |

I . 緒

Montaigne¹⁾에 의해서 創始된 프랑스의 Essais文學은 오늘날 그 廣範圍하고도 多樣多邊한 受容 發展으로 많은 變容을 이루고 있다.

일찌기 Montaigne가 3卷 107章으로 펼쳐낸 Essais의 試圖은 프랑스文學史에 하나의 劃期的인 著作으로 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실로 世界的인 作品으로 모든 文學作品 위에 直間接的인 影響을 끼치며 아직까지 學問的인 分野에서 또는 思想的인 分野에서 그 論述의 틀로 利用되고 있다. Essais는, 따라서 그 名稱上 形式上 여러가지 內容의 글과 思想을 表現하는 用具로 使用되면서 도히려 어떤 特정한 文學형식이나 장르로 固定되지 않은 채 오늘에 전해져 오고 있다.

한편 17세기초에 이루어진 英譯으로 영국에 건너가면서 Essais는 文學형식으로 장르化하는 場을 얻었고 이후 純粹文學分野에 있어서 그 形式은 많은 愛好를 받으며 特殊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文學장르로서의 位相을 굳혀 온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現象은 東洋제국에 波及되며 既存하는 『隨筆』과 等位의 文學으로 受容翻譯되기도 하였고 근간 韓國文壇에서는 隨筆文學이 대단한 熱意 속에 普及되며 Essais와 混用 同類視되는 傾向도 적지 않다. 隨筆作家들 中에는 自進하여 意圖的으로 자기 隨筆集에 에세이集이라는 表題를 붙이는 事例까지 있다.

그러나 外國에서의 偏向的인 固定 定立에도 불구하고 본고장 프랑스에서는 Essais를 文

* 人文大學 佛語佛文學科 教授

1) Michel Eyquem de Montaigne (1533-1592)

學장르의 어떤 틀로 定式化하려는 아무런 考慮 없이 作家의 意圖나름으로 Essais의 題材가 혹은 명칭에서 또 혹은 내용형식에서 自由롭게 使用되고 있으며 개념상의 定式을 設定하지 않고 있다. 모름지기 Essais는 小說이나 詩와 같이 作品形式의 共通된 格式을 強要치 않는 思索, 思惟의 表現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狀況 전체를 概觀하며 本稿에서는 프랑스 Essais文學의 類型을 具體的인 作品 例로써 分析하고자 한다. 그것은 既存하는 概念, 批評이나 文學史的 또는 思想史的 位相整理에서 한 걸음 나아가 對象을 直視하는 正確性이나 親近感을 함께하며 細部的인 研究의 興味를 줄 것이다.

Essais가 Montaigne의 어떠한 作意 밑에서 構成되었는가? 또 Montaigne의 Essais에서 發源된 다른 Essais의 例들은 어떠한가? Essais로 演繹되는 다른 作品들의 受容은 어디까지 可能한가? 우리는 Essais 속으로 헤치고 들어갈 것이다.

II. 一般的인 類型 概念

어떤 作品의 類型을 判別하는 方法은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 가장 쉬운 方法으로는 外形으로 分類하는 方法과 格式으로 區分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가령 小說로 친다면 短篇小說 長篇小說 등의 길이로 나누는 方法, 戀愛小說, 探偵小說 ……等 內容形態로 구분하는 方法, 또는 本格小說, 通俗小說 식의 作家의 作意로 分別되는 方法 기타 갖가지 類型區分이 可能할 것이다. 詩로 따지더라도 韻文詩, 散文詩의 區分에서 8行詩 14行詩라는 行數에 의한 구분 韻律, 脚韻 配置방법에 따르는 區分 기타 等等이 있겠다.

Essais의 類型을 區分하는데 있어서도 일단은 이와 같은 可視的인 또는 內容的인 一般性을 考慮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Essai(s)의 경우 小說, 詩와 같이 共認化된 類型分類는 없다. 類型區分을 안하고 確然한 形式으로 區分될 수 없는 것이 바로 Essais의 特徵이며 一般性이다. 그러나 그것이 不確定한 形式의 글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基準에 의해서 고려해 보는 일은 가능한 일이며 그와 같은 作業이 전혀 안될 것도 없다.

Montaigne의 Essais 107章을 길이로 分類해 볼 때 다음과 같은 數値가 나온다. 卽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72年 刊行 3卷으로 된 Le bivre de poche版에 의한 各章의 페이지面數²⁾의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2) 崇實語文 第1輯 p.115 (拙稿, Essais의 文學장르論的 考察)

페이지面數	해당作品篇數	페이지面數	해당作品篇數
1 페이지미만	3	16 ~ 17 사이	4
1 ~ 2 사이	13	17 ~ 18 사이	1
2 ~ 3 사이	13	18 ~ 19 사이	1
3 ~ 4 사이	13	19 ~ 20 사이	2
4 ~ 5 사이	8	21 ~ 22 사이	1
5 ~ 6 사이	7	23 ~ 24 사이	2
6 ~ 7 사이	2	27 ~ 28 사이	2
7 ~ 8 사이	4	34 ~ 35 사이	1
8 ~ 9 사이	5	35 ~ 36 사이	1
9 ~ 10 사이	1	39 ~ 40 사이	1
10 ~ 11 사이	5	41 ~ 42 사이	1
11 ~ 12 사이	3	65 ~ 66 사이	1
12 ~ 13 사이	2	70 ~ 71 사이	2
13 ~ 14 사이	3	221 ~ 222 사이	1
14 ~ 15 사이	1	計	107
15 ~ 16 사이	3		

이 통계로 보면 Essais가 길이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서술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길이를 우리말로 옮겨서 계산한 결과는 佛語版 原書의 1面當 길이 字數가 약 950字(200字 원고지 4장 반) 정도였다.³⁾ 따라서 4면미만(우리말로 옮겨서 200字 원고지 19장미만)의 작품이 42篇 40%의 절대적인 통계치를 차지하며 最長篇 222面(우리말로 옮겨서 200字 원고지 1,045매 정도)까지의 길이별로 본 作品篇數 分布狀況은 分散의이다. 때문에 Essais의 길이에 의한 類型을 굳이 따진다면 一般Essais와 長篇Essais의 區分이 可能할 것이나 長篇의 제약요건은 없다고 본다.

結局 Essais의 類型은 內容으로 區分하는 方法에서 찾게 되겠는데 이 역시 絕對的인 區分은 決定하기 어렵고 몇가지 基準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다. 筆者는 前에 Montaigne의 Essais를 그가 Essais에 臨하게 된 基本的인 精神姿勢로 推定하여 다음 4가지 類型으로 分類한 바 있다.⁴⁾

- 1) 自我探究와 自我確立의 表現手段
- 2) 知的作業의 用具로서의 試論型
- 3) Moraliste의 範示型 試論
- 4) 無形式의 形式

3) 前掲書參考, 孫宇聲譯『隨想錄』, 東西文化社版에 依한 字數對照換算.

4) 前掲書, <<Essais의 文學장르論的 考察>>

그러나 이것은 Essais 가 지니는 總體的인 內容性格이며 Essais 가 內包하는 作家精神의 所在을 探究한 Essais 의 多面性을 定義하는 類型이었다. 1) 의 類型과 2), 3), 4)의 類型이 따로 分類된다는 論理가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Essais 概念의 一般性이란 결국 이처럼 1) Montaigne에서 類推되는 標本이거나 2) Essais 의 共通的인 底邊精神 所在의 分類일 수 밖에 없음이 通例임을 免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Essais 의 類型을 糾明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作家를 選定하여 作家別 事例 속에서 그 特徵을 辨別하고 區分해 보므로써 一般의인 類型 概念에서 벗어나 特殊하고 多樣 多義한 類型의 斷面을 찾을 것이다.

Ⅲ. Montaigne 의 Essais

Montaigne 의 Essais 의 경우는 앞서서도 言及하였고 저 有名한 序文과 함께 많은 例示로써 實際的인 內容紹介와 더불어 여러가지 分析이 되어왔다.

지금은 Essais 第1卷 第1章《사람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⁵⁾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

이것을 例文으로 擇한 理由는 이 글이 제일 머리에 실은 作品이라는 <宣言的>인 價値를 認定採擇해서 이다.

이글에서 우리는 「怒한 사람이 복수를 손에 들고 그 상대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怒한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항복하여 怒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의 情을 일깨우는 일」과 「반대로 용감하고 불굴함」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여러가지 例示를 보게된다. 卽 1) 귀엔느지방을 다스리던 웰스공 에드워드의 노여움 앞에서의 리모쥬 사람들의 얘기 2) 에페이로스공 스키타르베그의 노여움 앞에서의 한 부하 병사 얘기 3) 황제 콘라드Ⅲ세가 바바리아공 켈펜을 攻略하였을 때의 얘기 4) 테바이의 市民들이 그 장군들을 심판하던 경우로 펠로피다스에 대하던 경우와 에파메이논다스에 대하던 경우 5)老디오니시오스가 레기움의 도시를 攻略한 끝에 장군 휘톤을 사로잡아 복수하는 장면 6)폼페이우스의 노여움 앞에서의 제논의 용기와 페르시아市에서 똑같은 용기를 보였으나 같지 않은 결과를 얻은 실라의 客人 얘기 7) 알렉산더대왕이 가자市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베티스에게 자행한 잔인성과 테바이市의 勇士들 얘기 等等의 例示다.

여기서 Montaigne 는 복수를 손에 한 勝者의 마음에서 怒여움을 가시게 하는 계기의 여러가

5) Par divers moyens on arrive à pareille fin.

지 면모를 또는 그 같은 행위가 동일한 계기 결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며, 尊敬과 同情의 힘이 과급되는 사람의 마음의 妙를 그리고 있다.

이것은 그의 짧은 Essais 들에서 흔히 있는 類型의 하나로 戰爭에 얽힌 얘기들, 攻防, 勝敗, 哀訴, 嘆願, 抗爭, 高邁, 豪胆, 嫉妬, 掠奪 等等의 具體的인 問題를 論하며, 提出한 主題에 關해서 考察을 記錄하는 類型이다. 이 類型에서 우리는 두 가지 以上の 例示를 並置, 集積하며 比較 辨別하는 歸納法的 思考方式을 본다. 또 提示한 對象의 二面性, 多面性을 浮刻시키며 獨斷을 排除하고 事物의 多樣性을 보는 〈方法的인 懷疑〉를 본다.

Montaigne의 Essais는 思考判斷을 作用시킨 結果이며 檢證과 探索을 위한 問題提起類型이다. Que sais-je? ⁶⁾란 말이 內包하는 뒤앙스 속에는 讀者들에게 보내는 思考行爲로의 이끌어드림이 있다. Montaigne의 Essais는 그러므로 讀者들의 意識에 따르는 여러가지 受容形態로 判斷機能을 觸發시키는 類型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引用한 第1章의 Essais 한篇에서도 우리는 Montaigne의 해박하고 多樣한 讀書의 癖을 짐작케 되며 古典世界에 對한 覺醒을 새롭게 한다. 例컨데 브르타르코스, 키케로, 세네카, 프라톤, 디오게네스 …… 等 史書, 地理書, 哲學書로 부터의 事例가 自然스레 流出되어 있다. 要컨데 Montaigne의 Essais 類型은 綜合累積展開型이라고나 할런지 모든 Essais에서 그러하였던 것 처럼 이 第1章에서도, 1580年版 texte에 添加하여 1588年版 增訂部分이 2개 部分 다시 그 후에 加筆한 部分이 3개 部分이나 된다.

이로 보면 Montaigne의 Essais는 또한 表現技法上的 加筆로 말의 選擇 語義의 吟味 또는 語法上的 調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한 번 써놓은 作品의 完成을 두고 두고 補完하는 類型의 Essais 였다고 할 수도 있다.

IV. Alain의 Propos

Essais를 論하면서 Alain⁷⁾의 Propos⁸⁾를 함께 얘기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Montaigne가 Essais의 명칭으로 自身の 文學을 表現한 것 처럼 Alain은 Propos의 명칭으로 그의 방대한 文學을 이룩하였다.

Alain이 自身の 文學을 Essais로 標題하지 않고 Propos로 내놓은 프랑스 文學의 狀況에서 우리는 프랑스 文學과 Essais 文學의 相關관계와 Essais 文學의 類型을 類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Alain의 Propos 文學은 文學의 Gense型으로 보아 Essais와 區分되지 않아도

6) 『Essais』第2卷 第12章, 〈내 무엇을 알겠는가?〉라는 句.

7) Alain; 本名 Emile-Auguste CHARTIER (1868-1951)

8) Propos; Alain이 試圖한 방대한 語錄(隨想), Alain은 이 作品에 獨自的인 명칭을 Propos로 붙였다.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Essais와 Propos의 관계를 推定하므로써 프랑스文學에 있어서의 Essais의 位置를 좀더 確實케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프랑스文學에 있어서의 Essais는 東洋的인 『隨筆』概念에 묶여있는 韓國文學概念上的 『에세이』와 같은 公概念的 言語觀念上的 拘束力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프랑스의 作家들은 標題와 상관없이 自己文學의 內容形態를 形成하며 自由롭게 作品創作에 臨한다.

Alain의 Propos를 分析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Montaigne의 Essais 第1章을 擇한 例를 따라 <<Propos sur le Bonheur>>⁹⁾ 제1장 < Bucéphale >을 texte로 삼는다.

總 54行,¹⁰⁾ 우리말로 옮겨서 200字원고지 약 10枚정도로 되는 이 作品中에서 Alain은 두 가지 例話を 가지고서 사람이 情念을 다스리는 이치와 그것에 관한 자기 생각을 펼쳤다.

첫머리 8行에서는 달래도 달래도 계속해서 우는 어린애 얘기로 시작하여 그 어린이의 성격분석을 하는 乳母의 추측이다. 乳母는 어린애의 아버지도 그랬다는 식으로 유전까지 논하며 심리적인 시도끝에 어린애 배내옷에 꽃힌 핀을 찾아내므로써 울음의 원인을 알게된다.

두 번째 文節 14行에서는 젊은 알렉산더대왕에게 名馬 부케팔루스가 바쳐졌을 때 그 사나운 짐승을, 어느 調馬師도 손익히 탈 수 없었지만 젊은 왕은 지혜로써 그 말을 달래어 손익했다는 얘기로 즉 알렉산더가 <핀>을 찾았다는 얘기다. 말을 날뛰게 한 핀은 자기 그림자였다. 알렉산더는 부케팔루스의 코를 태양 쪽으로 낚아채 올려 그 모양으로 계속 붙잡고 말을 안심시키고 피로하게 하여 말의 공포심을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文節 17行에서는 공포에 관해서 말하며 學者와 情念家가 생각하는 공포와 위협의 관계를 지적하고 그 오류를 말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文節 25行에서는 인간의 초조와 짜증에 대해서 또는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방법, 怒氣와 흥분 등등을 論하며 그것들을 제거하는 핀을 찾는 일을 말하고 있다.

Alain의 Propos文學은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 Essais形式의 글이다. 지금 그 內容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Montaigne의 Essais가 試圖한 思考方式을 찾기 어렵지 않다.

가령, 「現實과의 接觸에 그 思想의 뿌리를 내리고 現實을 바라보는 것을 始發點으로 하고서 그 思考를 展開한다」든가 「人間에 관한 모든 것에 關心을 끄는 卽 人間性을 探求하는 모랄리스트」的인 立場에 서있든가 「哲學은, 죽음, 질병, 꿈 따위에 단호히 부정의 判斷을 내리기 위해서 있다」든가 하는 主張의 基本姿勢는 거의가 Essais精神의 類型과 類似한 發想行爲의 思考形態다.

Alain自身이 그의 Propos에서 자주 Montaigne를 引用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와 같은 상관점을 考慮하며 重點的으로 集約하면 Propos도 Essais의 一種이라는 斷定조차 可能할 것이

9) 우리말로 옮겨서 『幸福論』, 98章의 內容으로 構成됨, 우리말 翻譯版으로는 乙酉文庫版으로 拙譯이 있음.

10) Gallimard版 수록에 의한 行數

다. 本稿에서 重要的 視角으로 다루고자 하는 點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Propos 를 一種의 Essais 類型으로 보는 論理다.

Montaigne 와 Alain 의 表現方式의 差異點이라 할까 아니면 力點의 差異點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찾는다면 두 사람이 모두 함께 判斷을 重視하면서 Montaigne 가 人間의 思考의 相對性을 強調하는데 比하여 Alain 은 判斷이 意志로써 이루어짐을 말한다.

Montaigne 의 경우는 表現에 대한 意志나 意欲이 勇氣에 由來될 수 있으며, 어떤 對象材料를 앞에 하고 思考가 卽興的으로 當장에 成立되기 때문에 失敗의 可能性도 內包된 試行의 뉴앙스를 지닌다. 때문에 Montaigne 의 Essais 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判斷力은 特性과 良識의 線에 直結된다. 그러나 Alain 에게 있어서의 特性은, 本質的인 德이며 그것은 知覺과 判斷行動을 다스리는 絕對的인 意志다.

Alain 은 特히 強硬하게 一貫된 생각에 立脚하여 思索을 進展시켜 나간다는 特徵이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떤 體系構築에 注力하지 않았다. Alain 이 그의 Propos 에서 力說한 것 중의 하나가 精神의 自由로운 作用이었으며 따라서 體系를 위한 配慮나 證明을 위한 努力을 重視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Propos 가 Essais 的인 構造를 지니는 文學形態로 歸結되는 要件中的 큰 몫을 지니는 內容이 될 것이다. 때문에 Propos 를 Essais 의 한 類型으로 提示하고 싶다.

그런데 Propos 文學이 志向하는 強硬한 moraliste 的인 人間性的 探求는 우리의 思考行爲에 있어서의 想像力에 依한 잘 못된 知覺을 일깨워주는 일에 한결같았다. Propos 文學이 占하는 Essais 類型은 따라서 「意志를 重히 여기고 理性을 높이 받드는 主意主義的合理主義」 類型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藝術論 역시 이와 같은 強硬한 意志로 創出되는 作品形成過程의 理論이었다.

Alain 은 「靈感에 의하여 주어지는 心像을 옮겨 지니는 것을, 藝術로 생각하는 思考方式을 잘못」이라고 말하였으며 「心像이란 思考하고는 相違한 것이며 心像에게 휘둘리다 보면 夢想, 妄想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結局 Alain 의 Propos 文學 底邊에 깔린 藝術模型의 類型을 우리는 이런 언저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 Camus 의 Essais

靈感과 想像力에 의한 心像을 받아 옮기므로써 心像에게 휘둘리다가 夢想, 妄想에 빠지는 危險을 경계하며, 이와 같은 危險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活動으로서의 藝術作業을 말한 Alain 의 Propos 文學이 뜻하는 Essais 類型과의 對照比較를 위하여 지금은 Camus¹¹⁾의 Es-

11) Albert Camus (1913-1960)

sis 로 예를 들어본다.

Camus 의 Essais 로 오면 Alain 의 Propos 보다도 그 類型의 判斷은 外型上으로나 內容上으로나 훨씬 더 모호하다. 그러나 이 모호성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France 文學이 內包하는 Essais 文學의 多樣性 乃至는 自由性을 알게 될 것이다.

프랑스文學을 集大成한 가장 權威있는 文學全集物인 Bibliothèque de la Pleiade¹²⁾ 에서 <Essais d'Albert Camus> 를 뽑아보면 프랑스文學에서 Essais 로 指稱하는 文學類型의 廣範圍함을 한결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Camus 의 Essais 集으로 編纂된 이 책에 收錄된 作品들이 우리가 通常으로 생각하는 <隨筆> 類型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發見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지포스의 神話>니 <反抗人>이니 하는 作品들이 이 책에 모두다 包含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해쳐보려 하는 作品은 Alain 의 Propos 와의 對比를 위하여 想像世界와 心像의 抽出에서 이룩한 作品 <結婚>¹³⁾ 中の <티파사에서의 結婚>¹⁴⁾ 이다.

이 作品은 Pleiade 版 6面길이의 우리말로 옮겨서 200字원고지 37枚¹⁵⁾ 에 해당하는 心像의 世界를 描寫한 글이다.

알제리아 Tipasa 의 한여름 廢墟를 걸으면서 황폐한 돌 무더기 宮殿집터에 滿發한 꽃덤불 속에서 神의 世界를 느끼며 自然의 畏敬을 呼吸하는 作家의 感覺的인 글이다.

뜨거운 太陽과 셋노랑게 핀 꽃과 廢墟의 검은 그림자와 프르른 바다와 대지의 거칠은 숨결, 그 속에서 사랑과 欲情을 느끼며 教訓도 哲學도 바라지 않는 人間의 마음을 表出하고 있다.

人間이 이룩한 寺院이 廢墟로 化하며 다시 돌이 되어 본래의 自然으로 돌아가고 오랜 歲月이 廢墟를 그 어머니의 집인 自然으로 되돌려 보내는 속에서 作家는 自然과 人間을 對比하며 自己의 본모습과 自然의 본모습을 冥想 觀察하고 있다.

들꽃과 바다와의 입맞춤, 廢墟와 봄과의 결혼, 바다와의 接合, 神과 흐르는 歲月, 生의 約定과 現實, 自然과 젊음과 사랑과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속에서 作家는 偏見에 反抗하며, 自己 삶의 意味를 意識하며 生의 歡喜를 맛보고 있다.

이것은 空間的인 現實로 느끼는 過去와 時間的인 現實로 느끼는 過去의 結合을 現在의 自己 속에서 느끼는 觀照와 靜觀의 世界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躍動하는 것들 속에서의 時空的인 바라봄과 休息 속에서의 時空的인 바라봄이라고 하겠다. 이 글 속에서 우리는 作家가 自

12) Gallimard 出版社 刊

13) Noces, Pleiade 版 P. 51-P. 88

14) Noces à Tipasa, Pleiade 版 P. 55-60

15) 良友堂刊, 世界에세이 100人選集收錄 金華榮 譯에 의한 換算

然 속에서 느끼는 歷史意識과 人間으로서의 自己使命과 完遂, 말하자면 人間の 役割로서 생각하는 삶을 바라보게 된다. 幸福을 義務로 하는 하나의 條件의 感動的인 成就로서의 生の 證言과 같은 것이라고 할 그런 것을 본다.

Essais를 moraliste (人間性探求者)의인 글이라고 볼 때, 사실 그것은 프랑스文學의인 視覺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Camus의 Essais가 志向하는 또 다른 Essais의 類型을 當然한 것으로 받아드리게 될 것이다.

Ⅵ. Valéry의 散文

Camus의 Essais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文章으로 된 感性의 表現을¹⁶⁾ 分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眩暈과 같은 황홀 속에 펼쳐지는 自我의 發見이었다. 이처럼 프랑스文學에서의 Essais의 世界가 어떤 固定된 類型으로 定式化할 수 없다는 것을 窺知한 마당에야 반드시 通念的인 例文에만 매이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Paul Valéry¹⁷⁾의 散文이 이와 같은 例外的인 類型追求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믿는다. Valéry의 散文은 獨自的인 認識理論을 펼친 글로서 알려져 있거니와, 그와 같은 獨自的인 理論思想이 『나』를 追求하는 探求에서 비롯된 것으로 判斷하므로써 問題가 되리라 생각한다.

가령 『테스트氏와의 하루밤』¹⁸⁾을 例로 볼 때, 그것을 처음으로 發表할 當時엔¹⁹⁾ Roman의 명칭으로 내놓았지만 再版以後로 Valéry는 이 Roman이라는 Genre 명칭을 削除하였는데 이 사실과 관련하여 Essais 類型을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作品『테스트氏와의 하루밤』을 Essais로 斷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Essais 類型의 研究考察을 爲한 資料로서 충분하리라 믿는다. 특히 이 『테스트氏와의 하루밤』의 두번 英譯을 위하여 Valéry自身이 쓴 序文²⁰⁾은 분명히 Essais 類型의 研究를 위하여 좋은 例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책의 序文에서 그 책을 쓴 作家의 <宣言的>인 思想思考의 表現을 接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Essais 類型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 分析對象으로 삼는 『테스트氏와의 하루밤』의 <序文>은 二重의 意味로 Essais 分析의 意義가 있다고 본다.

16) Camus의 『noces à Tipasa』는 프랑스文學中 三大美文으로 알려짐.

17) Ambroise-Paul-Toussaint-Jules Valéry (1871-1945)

18) La soirée avec Monsieur Teste

19) 前衛的인 文藝誌 <Le Centaure>에 1896年 發表

20) 1926年에 出刊된 英譯本을 위하여 써준 것

앞에서 나는 Camus 의 Essais 『티파사에서의 結婚』을 「眩暈과 같은 황홀 속에 펼쳐지는 自我의 發見」이라는 表現으로 評하였거니와 Valéry 의 『테스트氏와의 하루밤』에서 우리는 「遁辭가 없는 美」²¹⁾ 를 追求하는 自我認識의 過程을 본다.

이 作品에서 話者 「나」는 모든 일에 意識的이고자 하는 격렬한 欲望에 사로잡혀 일체의 애매성을 許容치 않는 강인한 頭腦를 꿈꾸고 있었다. 거기에 마침, 그의 欲望을 그대로 具現化한 것 같은 人物 Teste 氏가 나타나게 되어 「나」는 探偵처럼 Teste 氏의 거동을 觀察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Teste 氏와 함께 오페라극장에서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다. Tsste 氏는 「나」를 자기집으로 함께 데리고 간다. 그리고 잠(睡眠)이 精神에 미치는 意味에 관해서 說明하며 「人間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모든 것과 싸웁니다」라고 하며 잠에 빠져버린다.

이 『테스트氏와의 하루밤』을 쓰고 30 年의 시간이 흘러간 후 Valéry 는 이 作品의 〈序文〉을 첨가하면서 그 당시의 自己를 회상하여 自己가 作品中の 「나」와 마찬가지로 「正確性으로의 病에 걸려있었다.」고 述懷하고 있다.

따라서 이 序文이 意味하는 內容은 作中人物인 話者 「나」와 30 年前의 作者自身을 연결하는 오늘의 나인 作者의 思想思考라 하겠다.

Valéry 는 「他人에게 끼치게 될 効果에 대한 配慮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自己를, 있는대로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무엇 하나 거짓없이 여하한 自己滿足도 지니는 일 없이 認識하고 確認하려는 情熱과 이 양쪽에 자기의 野心을 分割하는 일은 나에게서는 부끄러운 行위로 생각되었다.²²⁾」고 述懷하고 있다. 「…… 이런 까닭으로, 나는, 자기를 自己가 現實로 소유하고 있는 諸特性으로 還元하려고 試圖하고 있었다. 自己 能力에 대해선, 거의 아무런 信賴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自己嫌惡에 必要한 것이면 무엇이건 自己 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발견되었다. …… 나는 自己 안에 하나의 內部的 섬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踏査하고 強化하는 일에 時間을 보냈다. ……」²³⁾

그래서 테스트氏는 탄생하였다.

「그의 격하고 또 짧은 삶은 既知의 것과 未知의 것과의 관계가 設定되고 組織되는 機構를 監視하는 일에 消費된다.」

Valéry 는 이처럼 「正確性을 追求한다는 急性病에 걸려」 모든 作品活動을 中止하고 20

21) 「遁辭가 없는 美」라는 表現은 Mallerarmé가 精神의 征服의 進展을 얘기하면서 쓴 表現

22) Il me semblait indigne, d'ailleurs, de partager mon ambition entre le souci d'un effet à produire sur les autres, et la passion de me connaître et reconnaître tel que j'étais sans omissions, sans simulations, ni complaisances.

23) J'essayais donc de me réduire à mes propriétés réelles. J'avais peu de confiance dans mes moyens, et je trouvais en moi sans nulle peine tout ce qu'il fallait pour me haïr; - - - - Je m'étais fait une île intérieure que je perdais mon temps à reconnaître et à fortifier. . .

年 가까운 沈默을 지켰다.

Essais文學의 特徵을 自己表現의 文學이라고 強調한다면 우리는 이 Valéry의 散文, 특히 「나」의 穿鑿에서 由來한 한 作品, 그것도 그 후 20年 가까운 沈默의 期間을 두었던 作品에 作品을 쓴지 30年後에 붙인 序文에서 밝힌 「나」의 分析은 分明히 色다른 類型이 되리라 생각한다. Essais文學이 表示하는 性格의 多樣性을 여기서는 作家의 삶의 里程表가 되는 「遁辭가 없는 美」로서 表現한 類型으로써 規定해 본다.

文學制作에 있어서의 嚴密한 意識的인 方法을 모색한 最高의 知性이 스스로의 構成要素로서의 宇宙를 한 人物로서 構築해 보려고 한 마음의 거울이라고나 할런지 어찌면 이것은 일종의 普遍精神에 있어서의 認識論을 위한 自己精神에 있어서의 認識論을 위한 自己告白일 수도 있을 것이다.

VII. Barthes의 Essais critiques

지금은 Roland Barthes²⁴⁾의 作品 『Essais critiques』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이 책은 책명 標題가 Essais로 되어 있다. 프랑스文學에서 Essais명칭으로 表現되는 또 다른 類型을 分析해 보기 위함이다.

이 책에는 序章(Préface)을 合하여 34篇의 作品이 실려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Critiques이라는 形容詞가 뜻하는 것과 같이 批評的인 글이다. 다시 말하여 批評的인 Essais다.

이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프랑스文學이 包容하는 Essais의 通用範圍의 일단을 보다 適確히 알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나타나는 Essais의 通念은 學問的, 學術的 文學批評文이다. 하지만 Barthes는 서슴 없이 이 글들을 Essais로 指稱하고 있다. 序章에서 그것을 確認하기로 한다.

Je puis bien parler aujourd'hui le brechtisme ou le nouveau roman (puisque ces mouvements occupent le premier cour de ces Essais) moi-même, sémantiques (puisque c'est là mon langage actuel) et tenter de justifier ainsi un certain itinéraire de mon époque ou de moi-même, lui donner l'allure d'un destin intelligible, ...

[나는 확실히 오늘날 브레히트主義라든가 누보 로망을 (이 운동들이 이 《에세》의 시초의 과정을 차지하니까) 意味論的 用語로서 (그것이 나의 현재의 表現方法이니까) 이야기하고 이처럼 내가 겪어온 時代의 아니면 내 자신의 一定한 <道程>을 정당화하고, 이 道程에 어떤 理解가능한 운명으로서의 外觀을 부여하고자 할 수가 있는데]

24) Roland Barthes (1915-1980)

25) Roland Barthes; Essais critiques P. 9

이 例文에서 우리는 Barthes 가 使用한 몇 개의 語彙들을 추려내어 그 속에 담겨진 또다른 Essais 性을 確認코자한다. 첫 째로는 自己 글을 「Essis」로 規定한 것, 두 째로는 「意味論」이라는 말, 세 째로는 「내가 겪어온 時代의 아니면 내 자신의 一定한 〈道程〉이라는 자기 삶의 反성회고적인 時間구획이다. 이것은 Barthes 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성찰의 글이 분명하다.

Préface 첫머리에서 그는 「거의 10 年전부터 序文 또는 記事로서 公표한 문장을 여기에 모으면서 필자는 되도록이면 이것들을 써낸 時代와 生活에 관하여 說明하러 한다」²⁶⁾ 고 밝히면서 글을 쓰는 일에 관하여 그것을 自己, 自己에 관한 沈默, 他者와 抗辯으로 記述하고 있다.

이 글에서 Barthes 는 한 作品이 지니는 또는 作家가 나타내고자 하는 意味에 대하여 말하면서 위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作家가 어떤 觀念을 表現하려고 할 때 그것을 讀者에게 傳하기 爲한 技術로서의 言語敘述活動과 그것이 傳達되는 과정 또는 傳達되어진 상태로서의 觀念들의 變化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다. 글을 쓰는 活動力과 作業的時間과 그리고 歷史的時間과 觀念의 發生的時間 사이에서 생기는 變化의 여러가지 형상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분명히 批評文이면서도 Essais 的인 本質이다. 더우기 自身の 10 余年間에 있는 作業 흔적들로서의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으면서 걸들린 序文이기 때문에 그 Essais 的인 性格은 당연히 認定될 수 있다.

Barthes 는 글을 쓰는 일 (Ecriture)이 지니는 一種의 使命을 말하고 있다. 글을 쓴다고 하는 執拗한 決意로 行하여지는 活動力의 行爲를 分析하고 있다.

한 개의 觀念을 物質化하기 위해서 보다도 勞苦하는 일 그 자체가 幸福인 것 같은 그런 勞苦를 길러내기 위해서 쓴다고 하는 清算心理 속에 Ecriture 가 지니는 一種의 使命이 있다고 본다.

글을 쓰고싶다 고 하는 意志와 글을 쓴다고 하는 決意 사이에 놓인 作家의 中間的位置를 지적하며 作家의 時間은 通時的인 時間이 아니라 敘事的인 時間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때문에 글을 쓴다고 하는 「Ecriture 의 이 活動的인 時間이, 통상〈道程〉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지 않는 곳에서 펼쳐진다.」²⁷⁾ 고 말하고 있다.

또한 作家를 定義하여 「作家란, 얘기하는 것이 직접 자기 자신의 말 (Parole)을 듣는 것인, 인간이다. …… Ecriture 란, 사실, 모든 레벨에서 他者의 Parole이며 이 역설적인 역전 (逆

26) 前掲書, p.9 En rassemblant ici des textes qui ont paru comme préfaces ou articles depuis environ dix ans, celui qui les a écrits voudrait bien s'expliquer sur le temps et l'existence qui les ont produits,

27) Barthes, "Essais critiques," P.11:Ce temps actif de l'écriture se développe très en deçà de ce qu'on appelle communément un itinéraire.

轉) 속에 作家의 참된 《天分》을 볼 수 있다.)²⁸⁾ 고 하며 文學의 存在방식으로서 메시지의 變奏를 말하고 있다.

즉 第1의 言語에서 第2의 言語로 變奏되는 테크닉, 例컨데 言語의 配列, 反語, 斷章 等을 통하여 하나의 世界와 하나의 自我로 意味부여된 素材의 思想傳達 過程을 詳細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批評文이지만 Barthes가 스스로 標題化한 Essais로서의 또 하나 類型이라 하겠다.

우리가 從來的으로 생각해 온 人性批評의인 Essais에서 완전히 벗어난 文藝批評的 또는 學問批評的 Essais型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우리는 自我의 探求와 自我所在의 糾明을 根本的으로는 是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III. Thibaudet의 Essayisme

Essais는 結局 어떤 特定한 文學genre로 머물 수 없을 뿐더러 思想을 담은 모든 文筆行爲 속에 源泉의으로 內在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지금은 이 사실을 좀 더 具體的으로 確認키 위하여 Thibaudet²⁹⁾의 文學史³⁰⁾에서 Essayisme을 생각해 보겠다.

Thibaudet는 「風俗이나 人間이나 生活의 意味를 隨伴하지 않는 文學의 意味란 무엇일까?³¹⁾ 라는 前提로 시작한 조그만 項目에 Essayisme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특히 Essais를 批評 속에서 必然的인 것으로 認定하며 「純粹히 文學的인 批評에는, 恒時 하나의 次元이 不足하리라.」³²⁾는 것을 指適하고 있다. 또한 Sainte-Beuve³³⁾를 引用하여 「그가 이해하고 있던 넓고 살아있는 意味로서의 批評은, 이미 16世紀에 하고 있었던 것 처럼 Montaigne에게 있어서, 즉 『隨想錄』 또는 試論의 세계로 그 영역을 펼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야 될 것이란 일은 누구나 안다」³⁴⁾고 하여 批評에는 Essais的인 次元이 必要하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Thibaudet는 특히 이 項에서 moralistes들의 批評을 隨筆家的인 批評(Critique essay-

28) 前揭書, P. 13: l'écrivain est donc un homme pour qui parler, c'est immédiatement écouter sa propre parole ---- L'écriture est en effet, à tous les niveaux, la parole de l'autre, et l'on peut voir dans ce renversement paradoxal le véritable ((don)) de l'écrivain.

29) Thibaudet, Albert (1804-1936)

30)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1789 à nos jours

31) 前揭書, P. 466 Qu'est le sens des lettres sans celui des moeurs, des hommes, de la vie?

32) 前揭書 A une critique purement littéraire. il manquera toujours une dimension.

33) Sainte-Bauve (1864-1869): 프랑스 19세기 비평가

34) On comprend que la critique, au sens large et vivant où l'entendait Sainte-Beuve, puisse et doive étendre son domaine comme elle l'étendait déjà au XVIe siècle, du côté de chez Montaigne, soit dans le monde des Essai, ou de l'essai.

iste)으로 보며, Lemaître³⁵⁾ 또는 Faguet³⁶⁾ 같은 批評家를 들고 있다. 또한 그는 時代性에서 隨筆의 要素를 指適하며 文學的地理 (géographie littéraire)라든가 時代的인 風土를 隨筆的인 것으로 指適하고 있다.

Sainte-Beuve의 『월요일 이야기』³⁷⁾ 처럼 當時의 時評集과 같은 批評作品에서 Essais類型을 指適하기도 한 것은 이 作品이 「책들이나 人物이나 時代에 關한 省察을 담은 著作」이라고 하는 理由때문이며 Remy de Gourmont³⁸⁾을 同一한 類型으로 보고 있다.

Thibaudet는 Gourmont에 關해서 많은 行間을 통해서 論하며 그를 Gide³⁹⁾와 함께 自由主義的인 에세이主義 (essayisme libertaire)에 속한다 하고 있다.

Gide에 關해서는 그의 小說까지도 Essayisme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說明하기를 「知性 위에 싹트는 神話며 마음의 日記에 쓰여지는 不安 위에 싹트는 個人的인 逸話」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Essais와 連關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함께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경험, 다시 말하여 Montaigne 식의 의미로, 試圖 (essais)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Gide의 5,6권의 文藝批評은 한 덩어리의 多樣한 형식색조를 지닌 隨筆속에 쓰여져 있다. 그 누구도 오늘날, Montaigne以來로 Essai의 프랑스的 複合物이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을 그 보다 더 잘 代表하는 사람은 없다.」⁴⁰⁾

Thibaudet의 Essais概念은 이처럼 경험과 試圖 사이에서 오는 Montaigne的인 思考展開였다. 따라서 Essais가 內包하는 批評的인 要素를 Essai의 風土 (climat de l'essai)로 說明하며 Montaigne에게서 發見되는 여러가지 形態의 批評과 後世作家들의 作品 속에 內在하는 類似概念의 發掘을 叙述하고 있다.

結局 우리는 Thibaudet의 文學史를 통하여 그가 생각하는 Essais的인 것, 그가 判斷하는 Montaigne的인 것의 多種多樣한 類型을 본다. 이 책에는 단지 Essayisme項에서 攄만이 아니라 全卷을 통하여 Essais에 關련된 또는 Montaigne의 文學類를 導入한 여러가지 理論展開가 있다.

그 중에서 特記할만한 한 가지 概念을 여기서 옮겨본다. 그는 Brunetière⁴¹⁾의 -《Manuel

35) Lemaître, Francois-Elie-Jules (1853-1914)

36) Faguet, Émile (1847-1916)

37) Sainte-Beuve: Causeries du Lundi

38) Remy de Gourmont (1858-1915)

39) André Gide (1869-1951)

40) On pourrait les appeler également des expériences, - des expériences, c'est-à-dire, au sens de Montaigne, des essais. Les cinq ou six volumes de critiques littéraire de Gide sont pris dans un bloc multiforme et nuancé d'essais. Nul aujourd'hui ne représente mieux que lui ce qu'on pourrait appeler depuis Montaigne le complexe français de l'essai.

41) Brunetière, Ferdinand (1849-1906)

d'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에 실린 글을 인용하여 「各文學時代」가 여러 가지文學的事件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을文學的即位에 의한다고 하며, 그 첫머리에 [Montaigne의 <Essais>의 即位에 의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治世라」⁴²⁾고 表現하고 있다. Essais를文學世界를 統治하는 하나의 君王의 領域으로 보는 視覺이다.

Ⅸ. 其他 類型

Essais의 領域을文學世界에서 생기는 하나의 君王即位로 比喩하며 새로운 統治治世로 表現한 時代區分이나 또는 Essai的인 風土로 論한 理論들은 모두 다 Essais形式이 固定할 수 없는 것임을 傍證하는 論理라 하겠다.

여기서는 주로 Montaigne 식의 天性을 지니는 作家의 作品活動에서 Essais의인 要素를 찾는 것이며 다시 말하여 「自己를 省察하고 自己를 描寫하고 自己 일을 記錄하는 天性」에서 비롯되는 作品活動 結果를 總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프랑스의 Essais가 모두 다 Montaigne的인 自我에서 發生하는 것으로 局限시킬 수 만은 없다. 가령 日記라든지 紀行文이라든지 그 밖의 觀察記錄들까지 상당히 많은 部類의 글에다 Essais 標題를 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文學史家나 文學批評家가 Essais로 分類하는 글들은 一律적으로 規定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대체로 詩나 小說이니 戲曲과 같이 뚜렷하게 그 genre가 外形上 決定된 것 以外의 思想書를 表示한 글을 Essais로 定義하는 것이 通例로 보인다.

따라서 Aphorisme, Maximes, Mémoires, Fragments, Propos, Réflexions 등의 명칭을 가지고 作家가 獨特한 類型을 만들지만 根元은 Essais의 또다른 類型임이 분명하다. 또한 앞에서 論述한 批評에 있어서 까지도 그 어떤 形式에서는 Essais의 명칭이 自然스러우며 學術論文의 標題에서는 그것이 研究, 또는 考察이라는 뜻과 맞먹는 意味로 使用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Essais가文學外的인 것의 명칭 範疇를 包容할 수도 있겠다. 본래의 Essais는 Montaigne가 政治的인 行動의 平面으로 부터 물러나므로써, <反參加>意志에서 試圖된 것이었지만, 그 實은 그것이 <反參加의 參加>로 이어지는 點에 特徵이 있다. 現場으로 부터 물러나서, 여러가지 경우에 처하게 되는 人間의 문제에 강한 흥미를 지니며 明瞭한 意識을 가지고, 人間의 자세와 行動을, 思辨과 實際의 兩面에 있어서 觀察 考察한다고 하는 參加 [engagement] 意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基準에서 생각할 때 Essais의 性格은 반드시 文學分野의 純粹한 創作精神으로서의 作品이기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次元에서 <Essais

42) Thifaudet, Histoire de la L.F. : Préface

sur ... >로 表示하는 많은 思想書를 著述하고 있다. 哲學書, 科學書와 같은 思惟의 書에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表題와 關係 없이 그와 類似한 著書 其他 小品 斷章들을 Essais類型으로 分類하는 일도 可能할 것이다.

X . 結 論

우리는 Essais 가 지니는 文學的인 Esprit 를 분명히 하기 爲해 프랑스文學에 있어서의 그 類型을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Essais 의 實際的인 紐帶는 여전히 廣大하고 多樣하여 프랑스語의 語源的인 意味와 實際的인 活用分野에서만 그 糾明은 確實해 질 것이다.

우리는 Essais 의 語源的인 始源을 純全히 言語的인 意味에서 찾으며 Montaigne 가 創始한 文學類型으로 그것을 歸結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Montaigne 에게서만 길어낸다 하여도 그 水脈이 單純한 몇 가지 類型으로 整理될 수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Essais 類型的인 變用 活用은 時代的인 潮流와 風土的인 照明 밑에서 作家와 著述家의 思想을 담기에 便利한 類型으로 構成創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後人들이 繼承한 Essais 의 흐름은 文學과 非文學에서 아주 自由롭게 受容되며 어떤 경우에는 그 連接의 脈絡이 確然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脈絡의 異質性을 엿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몇몇 作家個人을 그 思想과 作品內容으로 例示 考究하며 Essais 가 成立될 수 있는 類型을 살펴 보았지만 그것은 프랑스文學이 包容하는 Essais 의 多樣함을 窺知하는 하나의 方法이었다.

만약 우리가 韓國文學을 論하며 隨筆文學의 位相을 에세이의인 視野에서 定立할 必要에 直面한다면 이와같은 프랑스文學의 Essais 類型은 반드시 考察되어 마땅할 것으로 안다.

參 考 文 獻

著 者	書 籍	出 版 社
Thibaude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Stock
Montaigne	Oeuvre Complètes	Pléiade
Camus	Essais	Pléiade
Valéry	Oeuvres ○ Oeuvres ○○	Pléiade
Jacques Bersani	La Littérature en France depuis 1945	Bordas
Alain	Oeuvres	Pléiade
Alain	Propos sur le Bonheur	Gallimard
Roland Barthes	Essais Critiques	Edition du seuil
鄭鳳九	Essais 의 文學 장르論的 考察	崇實語文 第1輯
Montaigne	Essais I. II. III,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72.	
G.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Hachette.
Lanson-Tuffrau,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Hachette.
J. Plattard,	Montaigne et son temps, Boivin, 1933.	
フランス文學講座 5,	思想,	大修館書店.
フランス文學講座 6,	批評,	大修館書店.
日本フランス語フランス文學會編,	フランス文學辭典,	白水社.
串田孫一,	フランス思想史,	春秋社.
Duk-Yong Kong,	British Essays,	新雅社.
_____ ,	現代에세이百人選,	良友堂.

